

사업장 자율점검 내실화 및 근로감독을 통해 영세 사업장의 기초노동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1. 관련 기사

- 4.27.(일) 뉴스1, ‘작은 사업장’ 법 위반 60% 줄어든 이유는... “점검 자체를 안해서” 기사 등 관련

2. 설명 내용

- 「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사업」은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가 관련법 준수 여부를 확인, 위반사항 개선을 지원하는 것임
 - '24년부터 영세사업장의 실질적 근로조건 개선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영세 사업장의 특성, 점검 항목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금품체불, 최저임금 등 핵심항목 위주로 통합·개편하였음(18개 → 11개)
- 그 결과,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직접적 영향이 큰 임금 등 금품체불 항목*의 경우 위반사항 적발 건수가 증가하였으며,
 - 법 위반사항 적발에 그치지 않고 이에 대한 개선 지도에 노력한 결과, 개선 건수 및 비율 역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
 - * ▲적발 건수: '23년 183건 → '24년 197건, ▲개선 건수: '23년 173건 → '24년 189건
- 또한, 점검항목에서 제외된 항목*은 고용노동지방관서에서 별도 ‘취업규칙 미신고 사업장 점검('24년 약 5만개)’, ‘여성 다수 고용사업장 근로감독('24년 약 5천개)’ 등을 실시하여 현장에서 관련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였음
 - * 취업규칙 신고, 모성보호(직장내 성희롱, 육아휴직, 출산전후휴가), 계약서류 보존 등
- 앞으로도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소상공인 연합회 등 관련 협단체와 협업을 확대하는 등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,
 -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 외에 ‘현장예방점검의 날’ 운영 등 근로감독을 통해서도 영세사업장의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

담당 부서	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	책임자	과 장	김태연 (044-202-7553)
		담당자	사무관	홍순호 (044-202-7971)